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도제 장골용기(藏骨容器) 개발에 관한 연구

－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eramic Cinerary Urn

－ Based on the Statue of Twelve Gods －

2012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김 주 환

도제 장골용기(藏骨容器) 개발에 관한 연구

－ 십이지신상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eramic Cinerary Urn

－ Based on the Statue of Twelve Gods －

지도교수 김 종 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김 주 환

김주환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7월

심사위원장 이 명 아 (인)

심 사 위 원 김 종 현 (인)

심 사 위 원 이 정 석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i
도 목 차	iii
작품목차	v
I .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2
II . 이론적 고찰	3
1. 장묘문화	3
1) 세계의 장묘문화	3
2)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실태	8
3)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현황	12
2. 장골용기의 일반적인 고찰	18
1) 장골용기의 개념 및 역사	18
2) 장골용기의 형태	19
3) 장골용기 맺음고리의 형태	23
4) 현대 장골용기의 작품 사례	26
5) 장골용기의 현황	28
3. 십이지신상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30
1) 십이지신상의 기원과 조형적 변화	30
2) 십이지신상의 작품 사례	36
III . 작품제작 및 해설	38
1. 작품계획	38
2. 제작과정	40
3. 작품 및 작품 해설	41

IV. 결 론	50
참 고 문 헌	52
ABSTRACT	54

요 약

제 목 : 도제 장골용기(藏骨容器) 개발에 관한 연구

-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중심으로 -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매장(埋藏)중심에서 화장(火葬)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성장하는 납골(納骨)문화에 장골용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골용기는 망자(亡者)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유족에게는 망자를 추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인과 유족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실용성과 의미를 동시에 갖춘 장골용기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골용기는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적인 형태로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십이지신상은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생활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한 하나의 문화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질감(同質感)을 갖게 한다. 또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띠’라는 부호(符號)가 각자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띠’와 연관된 여러 풍습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관찰되고 세계적으로도 일정한 범위내의 민속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십이지신상에 등장하는 ‘띠’동물의 형상을 심미적(審美的) 관점에서 장골용기와의 접목하여 실사용자들과 관계 지음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중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옛 장골용기의 뛰어난 기능적 장점을 살리고 조형적 가치를 높여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 장에서는 장골용기 개발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였다.

II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먼저, 한국과 외국의 장묘(葬墓)문화를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실태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장골용

기의 발생과 시대적 변천에 따른 형태, 그리고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십이지신상과의 연계를 위하여 십이지신상의 역사, 조형적 변화와 특징, 의미 등을 이론적 고찰과 다양한 작품사례를 통하여 십이지신상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III 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대의 장묘문화와 현대인의 다양한 기호와 취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 장골용기의 기능과 기형적 특징, 표면장식 등과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 머무르며 내면세계를 형성하는 십이지신상의 의미와 형상을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연구하여 작품을 계획하고 제작, 해설을 통해 논술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장묘문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십이지신상을 상징적으로 부여한 장골용기의 시작품(試作品)으로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장골용기 제작 및 보급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표 목 차

< 표 1 >	납골시설 유형	9
< 표 2 >	납골당 Unit의 치수	10
< 표 3 >	지역별 화장률 현황	12
< 표 4 >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방법	13
< 표 5 >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14
< 표 6 >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 장소	15
< 표 7 >	납골수요 예상	15
< 표 8 >	황도 12궁 별자리 표	34
< 표 9 >	세계의 십이지 동물	35
< 표 10 >	태토 조성비	40
< 표 11 >	소성 그래프	42

도 목 차

[도 1]	미국 글렌데일에 위치한 「Forest lawn」.....	3
[도 2]	프랑스「페르라세즈」묘지	4
[도 3]	아파트식 집단묘지「니초(Nicho)」.....	5
[도 4]	일본 주택가에 있는 납골당	7
[도 5]	진열장식 납골당	9
[도 6]	벽장식 납골당	9
[도 7]	탑식 납골묘	9
[도 8]	평 판식 가족묘	9
[도 9]	집 모양 장골용기	18
[도 10]	통일신라 장골용기	18
[도 11]	고구려 회색 장골용기	19
[도 12]	대웅장골용기	20
[도 13]	호형 장골용기	20
[도 14]	합형장골용기	20
[도 15]	내호·외호형 장골용기	20
[도 16]	난형(卵形) 장골용기	21
[도 17]	갈고..부착형 장골용기	21

[도 18]	당삼채 장골용기	22
[도 19]	인화문 장골용기	22
[도 20]	「元和十年」銘 장골용기	22
[도 21]	갈고.형 뿔음고.....	24
[도 22]	종공 들찌귀형 뿔음고리	24
[도 23]	횡공 반환형 뿔음고리	25
[도 24]	귀면(鬼面)형 뿔음고리	25
[도 25]	박기용. < 백자 합형 장골용기 >	26
[도 26]	허은중. < 이슬람사원 장골용기 >	26
[도 27]	이승표. < 상감청자 당초문 장골용기 >	26
[도 28]	안명선. < 당신의 집을 벗어라 >	27
[도 29]	이현복. <백자 답장식 호>	27
[도 30]	불교용 장골용기	28
[도 31]	기독교용 장골용기	28
[도 32]	금빛 장골용기	28
[도 33]	그린자개 장골용기	29
[도 34]	매화 장골용기	29
[도 35]	십장생 장골용기	29
[도 36]	상감청자 장골용기	29
[도 37]	당초문진공 장골용기	29
[도 38]	황금진공 장골용기	29
[도 39]	김유신의 무덤 호석	31
[도 40]	김유신 묘 호석의 십이지신상 탁본	31
[도 41]	황도 12궁	34
[도 42]	임원행. < 토끼, 호랑이, 돼지 >	38
[도 43]	제42회 산업디자인전람회 < 십이지 달력 >	36
[도 44]	전창현. < 마형화기 >	36
[도 45]	유종욱. <나는 강하게 무엇을 지켜왔다>	39
[도 46]	장미경. < 호랑이 꼭두 >	39
[도 47]	권진규. < 마두 >	39

작 품 목 차

[작품 1]	자연강회유‘인(寅)’장골용기	43
[작품 2]	자연강회유‘신(申)’장골용기	44
[작품 3]	자연강회유‘진(辰)’장골용기	44
[작품 4]	자연강회유‘인(寅)’장골용기II	44
[작품 5]	자연강회유 12각‘묘(卯)’장골용기	45
[작품 6]	자연강회유 12각‘사(巳)’장골용기	45
[작품 7]	자연강회유 12각‘인(寅)’장골용기	46
[작품 8]	자연강회유 12각‘진(辰)’장골용기	46
[작품 9]	귀알분청자 12각‘유(酉)’장골용기	47
[작품 10]	귀알분청자 12각‘오(午)’장골용기	47
[작품 11]	귀알분청자 12각‘축(丑)’장골용기	47
[작품 12]	자연강회유 호형‘인(寅)’장골용기	48
[작품 13]	자연강회유 호형‘오(午)’장골용기	48
[작품 15]	자연강회유 호형‘미(未)’장골용기	49
[작품 16]	자연강회유 호형‘신(申)’장골용기	49
[작품 17]	자연강회유 호형‘유(酉)’장골용기	49
[작품 18]	자연강회유 호형‘사(巳)’장골용기	49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화장문화는 삼국시대 말인 7세기 무렵 불교문화의 유입으로 불교의 장례법인 다비의식(荼毘儀式)¹⁾의 영향을 받아 약 8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숭유억불(崇儒抑佛)²⁾정책에 의한 불교의 쇠퇴와 더불어 유학(儒學)의 영향을 받아 주자가례(朱子家禮)³⁾의 기본이 되는 매장법이 제도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현대에 들어와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으로 묘지에 의한 국토의 잠식과 환경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 대처 방안으로 환경과 국토를 생각하여 화장방식을 이용한 납골장례문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또한 개선되면서 화장률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납골장례문화에 장골용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골용기는 단순한 죽음에 대한 의식용 장례용품이 아니라 망자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유족에게는 망자를 추모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본인과 유족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실용성과 의미를 동시에 갖춘 심미적(審美的)인 장골용기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장골용기는 저가상품의 수입·유통과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적인 형태로 수요에 대한 양적인 발전에만 급급하여 질적 성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이 높은 동질감과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십이지신상의 사상과 신앙은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시간신(時間神), 방위신(方位神)과 수호신(守護神)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띠’동물로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세계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의 민속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

십이지신상의 열두 수호동물들은 한국인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띠’와 연관

1) 불교 장례의식 가운데 특히 화장(火葬)의식을 이르는 말.

2)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뜻으로 조선의 국교를 유교로 삼으면서 썼던 정책.

3) 중국 송나라 주자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관해 저술한 책.

관혼상제에 관하여 자세히 수록한 책으로, 궁궐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덕목을 잘 정리해 놓았다.

되어 있으며, 각자의 심성에 투영된 ‘띠’동물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동안 잠재의 식 속에 머물러 자아의 내면세계를 형성하며 대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띠’라는 부호는 십이지신상에 대하여 높은 동일감을 형성하여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골용기가 대중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옛 장골용기의 우수한 기능적 장점을 살리고, 십이지신상의 문화적 특징과 시각적 부호를 통해 현대적 개념과 조형적 가치를 높여 시대적 취향에 맞는 장골용기를 연구, 제작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첫째, 현재의 장례문화와 납골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치단(安置壇)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용도에 맞는 장골용기를 조망(眺望)해 보았다.

둘째, 각 관련문헌에 의한 역사적인 고찰과 시대별 분석을 통해 장골용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형(器形)적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 장골용기의 디자인을 관찰하여 작품제작의 이론적 배경으로 두었다.

셋째, 대중에게 익숙한 십이지신상을 해학적(諧謔的)인 표현방식과 조형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골용기를 제작하기 위한 조형성 연구에 참고하였다.

넷째, 장골용기의 형태를 단아하고 소박한 한국적인 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으로 간결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표현하고, 뚜껑과 몸체를 고정시켜 유골을 담은 내용기를 보호하며 유골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부환경의 온도변화에 따른 결로(結露)현상에 의한 유골의 부패를 막기 위해 옛 장골용기의 우수한 기능적 장점인 소성(燒成)법의 활용과 미세 다공질(微細多孔質)에 의한 제습작용과 건조기후에 습기를 방출하여 적정습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중구조의 장골용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장묘문화

1) 세계의 장묘문화

(1) 미국의 장묘제도



[도 1] 글렌데일에 위치한
「Forest lawn」

여러 민족이 혼합된 국가인 미국에서 유독 장묘 관행만은 민족 혹은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일한 의식절차를 따른다.

장례예식장을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보편화된 관행이며 영결식만을 교회에서 치루고 교회부속의 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장례예식장의 확대를 가져온 요인으로서는 도시화의 결과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수행이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점과 시체의 방

부 처리를 위해서는 장의사의 점포에 시신을 일정 기간 두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보다는 주로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다. 묘지는 주로 교회와 연계시켜 입지하고 있으며, [도1]과 같이 아름다운 잔디와 울창한 수목 등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전원, 잔디, 아파트형 묘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봉분(封墳)을 만들지 않고 관의 크기만큼 땅을 파서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변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1기당 묘지면적도 작게 차지하고 있다.

납골시설은 지상 매장시설 내에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납골구조물에 납골함상자를 설치하는 형태와 별도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형태이며, 미국의 지하 납골시설은 일반 매장묘지와 같이 잔디밭에 개인별 또는 가족묘 형식으로 설치되는 형태와 지하 납골당에 봉안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미국에서 화장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중위생과, 인구유통에 따라 먼 거리인 묘지까지의 운구(運柩)난, 그리고 묘지의 취득

난 등이 심각해진 때문이기도 하다.

(2) 프랑스의 장묘제도



프랑스는 묘지가 모두 공영으로서 통상 5년간의 임대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최장 35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장 후 5년경과 후 갱신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은 합장하고 있다.

[도2]의 페르라세즈 묘지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공설묘지로 1804년부터 파리시민의 유족지로 애용되고 있다. 나무가 우거진 야산 0.42평방 km에 영국식 정원개념을 살려 조성한 이 묘지는 세계최고의 근대식 묘지답게 파리시민이 가장 많이 묻힌 프랑스의 대표적 집단묘지이다.

【 도 2 】 페르라세즈 묘지 묘지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땅자나 그 유족이 돈이 많다고 해서 넓은 묘역을 차지할 수도 호화롭게 장식을 할 수도 없으며 가로 0.8m에 세로 1.6m 크기로 반 평도 채 안 되는 묘역에 높이 30cm 가량의 화강암 평석(平石)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페르라세즈 묘지는 프랑스 건축가‘브롱나르4)’가 최초의 정원식 묘지로 설계한 사실로도 유명해 이후 유럽 각국과 미국에 선보인 공원식 묘지의 효시가 되었다. 공원식 묘지답게 박물관으로 지정돼 문화재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돼 햇볕이 좋은 날이면 묘지 곳곳에 심어진 수목 아래 벤치에 산책 나온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기는 공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리 시내에는 총면적이 0.92평방km인 시립묘지가 14곳에 분산 설치돼 파리 시민들의 묘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묘지는 대다수가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의 시한부로 이용되어 끊임없이 재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파리에 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6천 명 가량으로 이 중 2천명(13%)이 화장되고 나머지는 매장되지만 묘지난은 찾기 힘들다. 매장되더라도 대부분이 가족

4) 알레상드르 테오도르 브롱나르 (1739. 2. 15 ~ 1813. 6. 6)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건축가. 우아하고 억제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파리의 오텔드 쿵테 (1780)를 세우고, 대표작 파리 증권거래소를 장대한 제정 로마 양식으로 건립한 외에도, 조원 (造園)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파리의 ‘페르라세즈’묘지를 설계.

표형태로 합장되는데다 1기당 분묘면적도 반 평 이하로 넓지 않기 때문이다.

(3) 스페인의 장묘제도



[도3]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집단묘지로 4~5m 높이의 Nicho(납골단)가 길게 뻗어있다. 지상에 아파트처럼 세워진 콘크리트 묘실이다.

가로세로 각 50cm에 깊이 2m 가량의 칸막이 Nicho가 벌집처럼 설치되어있다. 관이 앞뒤 양쪽으로 각

【 도 3 】 아파트식 집단묘지인 니초(Nicho) 1개씩 들어가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들어 3층짜리에서부터 6층짜리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아파트식 묘실로 지상 면적 1평에 시신이 평균 15구나 안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묘지난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시민의 선택에 따라 땅에 묻힐 수도 있다.

또한, 시립묘지의 경우 10년 사용조건의 분양가격이 매장의 경우 한화 60만원 가량이나 Nicho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은 15만원에 불과하며 99년간 장기임대에도 Nicho가 절반이상 싸게 먹힌다.

이처럼 Nicho식 묘소를 사용하는 추세는 도시의 묘지난과 경제성이 겹쳐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땅이 광활해 우리처럼 묘지난에 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찍이 Nicho라는 독특한 장묘문화를 창출, 묘지난이 발생할 소지를 없앴 셈이다. 스페인의 개성적인 장묘 법은 최근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남미 등지에서도 일부 유행하고 있다.⁵⁾

(4) 중국의 장묘문화

인구 13억, 남한 면적 97배인 중국에서는 장례식 일체를 화장장에서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세계인구의 20%가 넘는 12억의 인민들이 세계경작지의 7%밖에 안 되는 땅에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묘지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었다. 연간 평균 사망자 수가 6백만 명에 달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땅이 묘지터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모택동이 이끄는 혁명정부가 1956년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는 토장(土葬)제도를 금지시키는‘장묘문화 혁

5)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세계의 상장례 풍습」, www.life21.or.kr

명'을 시작했다.

북경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장장인 팔보산의 빈장관은 한해 2만 여명을 화장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화장된 시신은 당원과 군(軍) 지도자 등 모두 60여 만기로 관의 종류와 골격을 넣는 장골용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달라진다.

북경시에는 귀왕 화장장, 서부 화장장 등 지역마다 비슷한 규모의 화장장이 설치돼 있다. 팔보산 빈장관에서 처리된 유골을 장골용기에 담아 모두 노산 골회당으로 옮겨진다. 장골용기의 안치기간은 3년 비용은 한화 약 35만 원 가량으로 한 번만 내면 되며, 그 후에는 각자 회수하여 집에서 모시거나 공묘(公墓)에 평장한다.

장골용기를 묻는 묘 1기의 면적은 평균 0.5평방미터로 모두 부부합장묘다. 묘는 3~4종류의 일정한 크기의 비석과 상석(床石)으로 이뤄져 있으며, 비석에는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5) 대만의 장례문화

대만은 유교문화 종주국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나라여서 그런지 아직도 명당을 찾아 호화분묘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고,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만정부가 화장을 적극 독려(督勵)해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는 화장률이 90%를 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50%에 못 미친다. 1960년대부터 공동묘지'잡정조례'를 만들어 장례절차를 간소화하고 1970년대에 들어 공동묘지 공원과 10개년 계획, 장례시설개선 10개년 계획들을 세우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장묘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대만에는 기업화된 호화스러운 사설묘지업체도 많으며 호화분묘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런 호화분묘에 대한 비판은 대만 내에서도 적지 않다.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보다 비싼 땅에 대리석과 시멘트로 치장한 호화분묘는 환경파괴와 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현재 묘지면적 제한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등 호화사설분묘를 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매장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⁶⁾

6) 이일광, 「외국의 장묘제도와 장례풍습」, www.keywordguide.co.kr

(6) 일본의 장례문화



장묘 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死者)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99%)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48년부터 묘지 및 매장취체규칙(埋葬取締規則)을 제정하여 공영 화장장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하였다. 매장이나 화장된 유골에 대한 토장(土葬)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구역 내에서만 가능

【 도 4 】 주택가에 있는 납골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은 도시주변의 경우 약 4~5m²가 많고, 지방의 경우 6m²정도로 우리나라 묘지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작은 편이다. 또한 도시주변의 사설묘지를 금하는 대신 공동묘지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도입하여 묘지의 공원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의 묘지문화는 묘지에 대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떨쳐버리고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식 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⁷⁾

옛날 일본에서는 산에 납골당을 크게 만들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납골당을 설치한다. 납골당은 1인 1납골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한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일본의 풍습이며, 동네 가까운 곳에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묘지 대신 각 가정에 하나씩 납골당을 마련해 둔다.

대도시에서는 납골아파트를 만들어 아파트 문을 열듯이 자기 납골아파트를 분양 받아 유지하며, [도4]와 같이 언제나 쉽게 납골당을 찾을 수 있도록 납골당이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일본의 화장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화장 장려정책과 행정지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⁸⁾

7)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세계의 상장례 풍습」, www.life21.or.kr

8) 이재일, (2005), 「일본의 장례식과 납골문화」, 현대불교미디어센터

2)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실태

오랜 전통을 고수해온 매장제도로 전 국토에서 묘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로 이는 주거지역의 0.5배, 공업지역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매년 여의도의 1.2배가 묘지로 잠식되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국토의 5.2%가 묘지로 뒤덮여 있다. 또한, 연고 없이 방치된 무연고묘지가 전체묘지의 40%에 달하며, 일부지도층의 불법호화분묘는 사회적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2001년에 개정, 시행된‘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묘지면적을 축소 규정하여 개인묘지는 30㎡이내, 집단묘지내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이내(합장일 경우 15㎡)로 제한하였다[제 16조].

특히, 매장묘지의 시한부제도를 도입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최장 60년까지 허용하며, 60년 후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산골(散骨) 또는 납골하도록 규정하여 2001년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는 영구존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제 17, 18조]. 또한, 종래 인정되어 왔던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고 연고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보존을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 23조], 제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묘지증가에 의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현재 장사정책 방향은 매장문화를 개선해 화장 및 납골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원묘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로 대략 세 종류로 나뉜다.

공원묘지 중 국립묘지는 서울과 대전에 있고 국가 유공자만이 안치, 안장될 수 있다.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며 그 지역에 따라 공원묘지분양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지역 주민에 한하며, 공원묘지의 가격은 100~200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하다.

사설묘지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특별한 조건은 없다.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종교와 상관없이 개인이 공원묘지를 분양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한번 공원묘지 계약하면 영구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공원묘지의 분양 가격은 공설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으로 평당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⁹⁾

납골시설은 화장한 유골 또는 분골을 안치하기 위한 건물 또는 구조물로 <표1>과 같이 장골용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지상형의 납골당과 지하형의 납골묘로 구분되며, 납골당은 위치에 따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옥내 납골시설은 납골당을 지어 그 안에 납골함을 설치 유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진열장식[도5], 벽장식[도6]이 있으며, 옥외 납골시설은 지상에 병풍식, 담장식, 정원식, 탑식[도7], 비석식 형태가 있다.

< 표 1 > 납골시설 유형

구분	구조	위치	안치단 형태	납골간 형태
지상형	납골당	옥내	진열장식, 벽장식	서랍식, 락커식
		옥외	병풍식, 담장식, 정원식	서랍식, 락커식
			탑식, 비석식	영탑식, 조형탑식
지하형	납골묘	평묘	평판식	유함식, 무함식
		분묘	봉분식	

시신을 화장 후 유골을 지하에 모시는 납골묘는 평묘의 형태로 평 판식[도 8]과 분묘의 형태인 봉분식으로 나뉜다. 봉분식은 전래의 묘 형태를 따르면서도 1기당 여러 가족의 유해를 납골할 수 있어 묘지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화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형 가족납골묘로 인식되고 있다.



[도 5] 진열장식

[도 6] 벽장식

[도 7] 탑식

[도 7] 평판식

납골묘는 납골의 안치가 주로 지하매장방법으로 습기와 악취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납골수가 제한되고 외관상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어려

9) 신봉균, (2008), 「모란공원 납골당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 납골당 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9

음이 있다. 또한, 납골당을 이용하는 것보다 토지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치단은 개인별 또는 가족묘형식으로 형태로 구분되며 가족납골묘지는 한 장소 당 3대가 합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대개의 가정에 3대 이상이 공존하고 있는 의미연장으로 정했다.

안치단은 장골용기를 안치하여 보관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납골당의 안치단은 벽장이나 진열장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단의 경우 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정사각형 형태를 취하며 아래 <표2>와 같이 평균 30×30×30 Cm 규격이나,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연번 E는 44×36×45 Cm의 규격을 보이는데, 이는 위폐, 사진, 애장품을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주문 형이다.¹⁰⁾

< 표 2 > 납골당 Unit의 치수

(Cm)

	폭 (W)	높이(H)	깊이(D)
A 납골당	23	26	35
B 납골당	30	30	30
C 납골당	32	32	32
D 납골당	30	27	30
E 납골당	44	36	45
F 납골당	30	27	31
G 납골당	30	27	31

양영훈, 납골당 납골실과 참배실의 건축에 관한연구, 경성대학교

장골용기의 크기는 화장된 유골의 양에 따라 적정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장한 유골은 유골을 분골(粉骨)하여 보관하는 방법과 분골하지 않고 그대로 수습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분골할 때 유골의 부피는 더 줄어들며 성별, 연령대, 체격, 화장온도와 시간 등에 따라 유골의 부피가 조금씩 차이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통 장골

용기의 크기는 사각형 용기일 경우 크기가 20cm×20cm×20cm, 원형일 경우 지름 20c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는 밀봉을 위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내부 체적(體積)이 대략 4L 정도의 부피이다.

10) 박형삼, (2009), 「후모납골시설의 실내 건축 계획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5

일반적으로 골분(骨粉)의 부피와 무게는 성인남자의 경우 약 3L 내외에 평균무게 3.3kg 정도이며, 여성의 경우 약 2L 내외에 1.5kg 정도로 성인남자 유골 분은 장골용기의 3/4 내외를 차지한다.

안치단은 초기 선반과 같은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현재와 같은 밀폐형 안치단의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석재 안치단이나 목재로 밀폐형 구조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은 내부를 볼 수 없는 갑갑함이 불만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최근에 등장한 안치단은 전면에 금속으로 두르고 투명유리를 끼워 밀폐하는 형태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¹¹⁾

11) 국가보훈처, (2009), 「안장능력 개선방안 연구」, p.53, 56

3)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현황

(1) 지역별 화장현황

2010년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매장 및 화장에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신뢰구간 95%, 표본오차 $\pm 1.79\%$)에 의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로 화장은 매우 낮았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0%대에 머물러 있던 1970대에 화장률은 2009년 65%, 2010년 67.5%로 증가하여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표 3 > 지역별 화장률 현황

구 분	사망자수		화장자수		화장률(%)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계	246,942	255,403	160,433	172,276	65.0	67.5
서울	38,788	40,129	27,992	30,444	72.2	75.9
부산	18,952	19,709	15,627	16,459	82.5	83.5
대구	11,742	12,054	7,708	8,095	65.6	67.2
인천	11,663	12,086	9,259	9,804	79.4	81.1
광주	6,180	6,530	3,540	4,000	57.3	61.3
대전	5,950	6,311	3,748	4,205	63.0	66.6
울산	4,317	4,327	3,188	3,364	73.8	77.7
경기	45,135	47,687	32,479	35,197	72.0	73.8
강원	10,416	10,728	6,252	6,877	60.0	64.1
충북	9,987	9,826	4,760	4,914	47.7	50.0
충남	13,554	14,015	6,038	6,786	44.5	48.4
전북	12,920	13,190	6,999	7,524	54.2	57.0
전남	15,734	16,043	7,010	7,771	44.6	48.4
경북	19,625	20,247	9,822	10,691	50.0	52.8
경남	19,153	19,504	13,534	14,444	70.7	74.1
제주	2,826	3,017	1,318	1,457	46.6	48.3

보건복지부 2011.4. 보도자료

현재 지역별 화장률은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이 83.5%로 가장 앞서고 인천 81.1%, 울산 77.7%, 서울 75.9%, 경남 74.1%, 경기 73.8% 순으로 제주가 48.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 그리고 수도권지역이 밀집된 경기도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울산도 높은 화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장례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밀집으로 인한 묘지의 부족이 더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도시화의 발전이 다소 약한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 등이 타 시도에 비하여 부진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화장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이 아직은 크지 않은 사회구조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¹²⁾

(2)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표4>에 나타난바와 같이 국민들은 본인의 향후 장례방법으로 매장(15.1%)보다 화장(79.3%)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본인의 유언에 의한 적극적인 화장 참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생활 형편상의 이유나 사고사와 같은 부정적인 이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화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 >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구 분		매장	화장	미정	전체(명)
전 체		15.1	79.3	5.6	100.0 (3,000)
성별	남자	17.9	75.3	6.8	100.0 (1,469)
	여자	12.4	83.1	4.4	100.0 (1,531)
연령	30~39세	10.4	82.4	7.2	100.0 (792)
	40~49세	11.3	83.4	5.2	100.0 (820)
	50~59세	14.4	80.7	4.9	100.0 (653)
	60세 이상	25.0	70.1	4.9	100.0 (735)
학력	중졸이하	21.4	72.7	6.0	100.0 (739)
	고졸	13.7	82.0	4.2	100.0 (918)
	전문대졸 이상	12.5	81.3	6.2	100.0 (1,322)

보 건복지부 2011.4. 보도자료

주: 무응답과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2) 정민자, (2007), 「한국의 장묘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 박사학위 논문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35.1%로 가장 많았고 '간편해서' 27%, '관리하기 쉬워서' 2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 >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간편해서	관리하기 쉬워서	기타	전체(명)
전체		4.6	35.1	27.0	25.0	8.2	100.0 (2,379)
성 별	남자	4.9	31.7	28.6	25.7	9.1	100.0 (1,106)
	여자	4.4	38.0	25.7	24.4	7.5	100.0 (1,273)
연 령	30~39세	4.9	32.2	31.9	24.2	6.9	100.0 (653)
	40~49세	3.9	37.1	25.4	24.4	9.1	100.0 (684)
	50~59세	4.2	37.6	23.5	27.1	7.6	100.0 (527)
	60세 이상	5.6	33.6	26.6	24.7	9.5	100.0 (515)
학 력	중졸이하	4.5	35.8	27.0	24.0	8.8	100.0 (537)
	고졸	3.9	37.3	24.7	26.7	7.4	100.0 (753)
	전문대졸 이상	5.2	33.0	28.8	24.6	8.4	100.0 (1,075)

보건복지부 2011.4. 보도자료

주: 무응답과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본인의 장례방법으로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장소로는 <표6>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자연장(39.9%), 봉안시설(32.7%), 산·강 등에 뿌리는 산골(27.3%)순으로 '자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이나 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葬事)방법을 말한다.

< 표 6 >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 장소

(단위: %, 명)

구분		납골 시설에 안치	나무, 잔디 등에 묻음 (자연장)	산, 강, 바다에 뿌림(산골)	전체(명)
전체		32.7	39.9	27.3	100.0 (2,343)
성별	남자	37.1	35.0	27.9	100.0 (1,093)
	여자	29.0	44.2	26.8	100.0 (1,250)
연령	30~39세	46.7	36.2	17.2	100.0 (647)
	40~49세	31.2	44.9	23.9	100.0 (677)
	50~59세	22.6	45.5	31.9	100.0 (517)
	60세 이상	27.3	32.5	40.2	100.0 (502)
학력	중졸이하	24.4	34.4	41.2	100.0 (520)
	고졸	31.1	40.5	28.4	100.0 (746)
	전문대졸 이상	38.0	42.2	19.8	100.0 (1,063)

보건복지부 2011.4. 보도자료

주: 무응답과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납골의 수요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골 안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공설 봉안시설 12개소(안치능력 249천구), 공설자연장지 9개소(안치능력 152천구)를 조성·추진 중에 있다.

현재의 이용추세를 기준으로 <표7>과 같이 추계된 결과에 의하면 2020년까지 약 62만여 기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7 > 납골수요 예상

연 도	2005					2010	2015	2020
	2001	2002	2003	2004	2005			
안치율 (%)	63.9	66.3	67.8	68.7	69.3	70.0	70.0	70.0
누적납골 수요	17,849	37,771	59,521	82,899	109,715	261,925	434,747	619,8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정연 2001-R-29

(3)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으로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업용지 확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묘지 사용기간 관리가 미흡하여 법령상 제한 규정은 없고 단지 훈령(訓令)으로 기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세 번만 계약 갱신토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며¹³⁾, 현재 약 750여만 이상의 분묘, 즉 묘지의 약 40%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무연분묘(無緣墳墓)로 간주되고 있고 관리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수많은 불법묘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호화분묘가 아직도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장묘관행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3년 이내,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대안으로 묘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을 확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 등 장묘관습의 개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¹⁴⁾

2001년 장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률을 높이고 납골묘, 납골당을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일본이나 유럽 등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현대화된 장묘시설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장묘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신규 건립, 증·개축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묘지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당국과 지자체 입법기관 등의 정책적 의지가 취약하여 법률개정 이외에 예산의 편성 및 투자, 관련 기관조직단체 등을 통한 결집된 개선노력이 거의 없는 무정책상태에서 지내다보니 오히려 묘지문제를 가중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 장묘시설의 대부분은 대부분 공원화된 묘역이 도심의 거주 지역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 동시에 일정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유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식과 추모 공간, 나아가서

는 교육·문화시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화장위주의 장묘문화가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13) 이일광, 「장묘문화의 현재와 미래」, www.keywordguide.co.kr

14) 김경혜, (2001), 「장묘시설 수급 및 정책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6

선진국과 같이 장묘시설을 현대화하고 장묘시설이 더 이상의 죽은 자만의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과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공원화하고 경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갖추도록 보다 많은 투자와 시민 각자의 의식변화와 실천의지를 향상시키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¹⁵⁾

15) 이필도, (2006), 「한국 장묘문화의 현황과 변화의 방향」, 에이앤씨

2. 장골용기의 일반적인 고찰

1) 장골용기의 개념 및 역사

장골용기란 뼈단지(Cinerary Urn)로 인간의 시신을 화장한 뒤, 뼈를 추려 담아 매장할 때 쓰던 용기로 납골단지, 골호(骨壺)라고도 한다.

장골용기는 금속·도자·돌·유리·나무 등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도9]에 보이는 집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장골용기를 이루는 용기의 개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화장한 뼈를 직접 담은 내용기와 이 내용기를 넣은 외용기의 구성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러나 내용기 하나만을 사용하거나 [도10]과 같이 외용기안에 작은 내용기 3~6개를 넣거나 뼈단지 2개를 상하로 포개놓은 경우도 있다.¹⁶⁾



【 도 9 】 집모양 장골용기



【 도 10 】 통일신라 장골용기

장골용기는 삼국시대인 4~5세기경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장법(葬法)인 화장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 말인 7세기경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그 문화 속에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는 화장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국왕의 화장기록이 전무한데다가, 기타의 불승(佛僧)의 탑비문(塔碑文)등 화장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화장 묘와 장골용기 발굴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여 불교문화로 인해 불교식 화장이 성행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에 불교를 공인하고 660년 멸망할 때까지 약 300년간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뼈단지」, www.encykorea.aks.ac.kr

신라, 일본보다 선구적으로 불교국이 된 나라이다. 장골용기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게 된 사비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백제 후기에 와서 크게 유행하였다.

백제에 이어 신라에서도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불교식 화장과 장골용기의 발생을 볼 수 있다. 화장 문화가 성행함에 따라 장골용기의 기형이 새로이 창안되고 일상생활용 토기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띤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7세기 중엽부터 상호간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결국 신라에 의해 660년에 백제, 667년에 고구려를 꺾고 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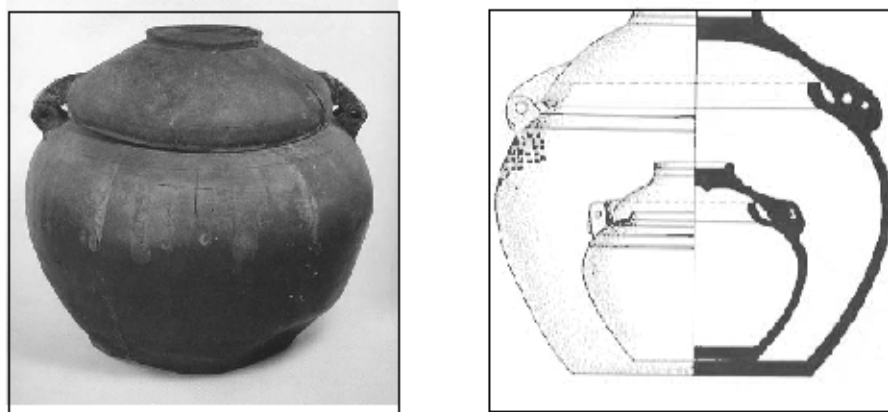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문화는 불교문화가 그 중심이며 통일 이후 왕들이 불교식으로 화장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장골용기가 성행하였다.

2) 장골용기의 형태

삼국시대에 있어 전기한 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장골용기의 예를 잘 찾아볼 수가 없으나 백제와 신라는 각기 독특한 장골용기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작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뚜껑이 있는 합 의 형태이나, 중기와 후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장골용기가 제작된다. 또한 삼국통일 이후 불교의 화장법이 성행하면서 답, 불구(佛具)등과 관련 있는 형태와 문양들이 나타나게 된다.

고구려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식(漢式)계통의 회색 또는 흑회색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11]



[도 11] 고구려 회색 장골용기

백제의 장골용기는 후기에 와서 크게 유행하며 회백색을 띤 고온의 경질(硬質)토기로 그 형태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항아리(호·壺)형태가 가장 많고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형태에 따라 대용(代用)장골용기, 호형장골용기, 합형장골용기, 내호·외호형 장골용기 등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며 뚜껑을 갖춘 호형과 합형 장골용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 도 12 】 대용 장골용기

대용 장골용기는 기다란 달걀모양의 밖으로 벌어진 항아리 모습으로 별도로 대접을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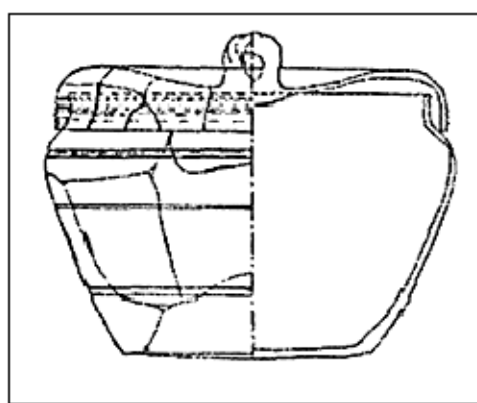
【 도 13 】 호형 장골용기

호형 장골용기는 직립된 아가리에 넓은 어깨가 있고 바닥이 납작하며, 보주(補柱)형 꼭지가 달려있다. [도13]

합형 장골용기는 호형 장골용기와 같은 유형이지만 뚜껑이 접합하는 부분이 엇갈리지 않고 정확히 상하가 꼭 들어맞는 장골용기를 말한다. [도14]



【 도 14 】 합형 장골용기



【 도 15 】 내호·외호형 장골용기

이 밖에 내호·외호형 장골용기가 있는데, 이 장골용기는 작고 큰 항아리가 두개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도15]

이러한 내호·외호형 장골용기 사용은 백제에서는 처음 발견된 드문 형식이며 통일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하는 이중 장골용기 형식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¹⁷⁾

신라의 장골용기는 대부분 신라 토기로 특별히 고안 제작된 전용 토기를 사용하였는데, 대략 5기로 나누어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1기(불교공인 528년 ~ 삼국통일 668년 이전)에는 고(古)신라도기 기형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둥근 항아리와 작은 투공의 굽이 달린 난형합(卵形盒)[도16], 구형합(球形盒) 등에 횡침선대문(橫沈線帶文), 정원문(正圓文),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 등이 시문된다.

2기(668년-8세기 이전)에는 1기의 구형합 기형을 계승한 땃음고리 달린 합이 고안되었다. 이것은 뚜껑 사방과 몸체 사방에 갈고리형 고리를 부착하여 이들을 철사 등으로 결박하는 것이다[도17]. 무늬로는 기면 전면에 겹반원수직연속문(重半圓垂直連續文)이 연주화형문(蓮珠花形文)과 결합한 압인문(押印文)이 시문된다.



[도 16] 1기 난형합



[도 17] 2기 갈고리 부착형 장골용기

17) 강경숙, (1989), 「韓國陶器史」, 일지사



3기(8세기 상반기)에는 갈고리형 이외에 구멍이 위에서 아래로 뚫린 고리, 구멍이 옆으로 뚫린 고리를 단 맺음고리 달린 합이 보편화되며 그 기형도 구형에서 변화하여 말각구형화(末角球形化)로 변화한다. 외용기로서 들함이 제작되고 당삼채(唐三彩)가 내용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도18]

【 도 18 】 당삼채 장골용기

토기의 문양으로는 연속호문(連續弧文)에 연주화형문(蓮珠花形文), 사관화문(四瓣花文), 영락문(連續弧文璣珞文) 등이 특징이다.



【 도 19 】 4기 인화문 장골용기



【 도 20 】 5기'元和十年'銘 장골용기

4기(8세기 하반기)에는 3기의 맺음고리 달린 합이 여전히 유행하나 기형이 커지고 통형(筒形)화하며 둔중해진 것이다[도19]. 토기의 무늬는 연속호문 영락문이 유행하나 3기와 같이 기면 전면에 시문되지 않고 저부(低部)에는 무늬를 넣지 않는다. 그리고 1기에 유행하던 횡침선문(橫沈線文)이 다시 등장한다.

5기(9세기 이후)에는 여전히 맺음고리 달린 합이 주류를 이루고 4기와 같이 기형은 둔중한 통형이다. 무늬는 압인문이 거의 소멸하고 1·4기와 같은[도20]과 같이 횡침선문만 남는다.'元和十年'은 815년에 해당되어 장골용기의 편년(編年)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 민애왕릉의 축조연대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내용기로 청자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이상의 기형과 무늬 외에 뚜껑의 꼭지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신라 장골용기의 뚜껑꼭지에는 불교의장인 보주형과 산개보륜형(傘蓋寶輪

形)이 가장 많으나 작은 항아리형, 등근고리형 등도 성행 하였다. 보주형은 전 시기에 나타나는데 1기에는 작고 정교하며 뾰족한 보주형이 유행하였다. 2기와 3기에는 원추형의 보주형이 유행하였다가 4기와 5기에는 연꽃봉오리 정도로 커진 둔중한 원추형의 보주형이 유행하였다. 산개보륜형은 1~4기에 제작되었는데, 1기에서는 불탑상륜부의 산개보륜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3단 산개보륜의 직경이 넓고 납작하나 2~3기의 것은 구슬처럼 양감을 가지는 3단 보륜형이 되며 매우 정교하게 발달한다. 이것은 4기에는 점점 쇠퇴하여 5기에는 없어진다.

고려시대에는 내용기로 자기나 목제품을 사용하였고, 외용기로는 조립식의 6면 돌널을 사용하였다. 돌널에는 화려한 그림을 선각한 것이 보통인데 사신도나 비천상(飛天像) 등이 그림의 주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후 장골용기는 소멸하고 화장유골을 돌널을 비롯한 장구(葬具)에 직접 매장하는 풍습으로 바뀌었다.¹⁸⁾

3) 장골용기 맺음고리의 형태

맺음고리란 뚜껑고리와 몸체의 고리를 서로 끈으로 묶기 위해 장골용기에 부착한 고리형태를 말한다.

맺음고리를 부착한 장골용기는 신라 장골용기의 대표적 기형으로 중국, 백제, 일본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창적 고안품이다. 종공이나 횡공을 뚫은 각종 형태의 맺음고리를 뚜껑사방과 몸체사방에 부착하여 철사 등으로 몸체의 고리 구멍에 넣어 결박함으로 맺음고리라 하였다.¹⁹⁾

주로 외용기에 사용하였으나 내용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맺음고리 달린 장골용기는 고리를 이용하여 뚜껑과 몸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유골을 직접 담은 내용기를 보호하거나 유골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였다.

신라시대의 맺음고리 달린 장골용기의 기형은 주로 부각주형을 띤 합류로써 몸체의 비율이 비슷하다. 중국의 육조 수, 당 시대의 호형과 병형 도자기 어깨 부위에 2~8개의 맺음고리가 부착된 사례가 있으나 뚜껑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4~6개의 고리가 달린 육조의 청자병과 청자호가 백제 무열왕릉에서 출토되

18) 국립 문화재 연구소, 「뼈단지」, www.nrich.go.kr

19) 정길자, (1989), 「통일신라시대의 화장골장용토기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3

었으나 신라시대의 맺음고리가 달린 합류와는 기형과 맺음고리의 용도가 달라서 신라의 독창적 창안품으로 보여 진다.²⁰⁾

(1) 갈고리형 맺음고리



[도 21] 갈고리형 맺음고리

갈고리형 맺음고리가 달린 장골용기는 뚜껑사방과 몸체사방에 갈고리 같이 꼬부라진 돌기를 부착되어 있다. 뚜껑에 부착된 갈고리형 맺음고리는 상향사방으로 부착되어있고 몸체에 부착된 갈고리는 하향 사방에 부착되어 있어서 뚜껑과 몸체 고리를 끈으로 결박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갈고리형 맺음고리는 신라 금관총에서 출토된 장군호의 아가리에 하향으로 부착된 예로 봐서 갈고리형 맺음고리는 고신라시대 토기의 형태를 계승하고 있어 맺음고리 형태 중 가장 시대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2) 종공 돌쩌귀형 맺음고리



[도 22] 종공 돌쩌귀형 맺음고리

맺음고리의 형태가 미달이문에 부착하는 돌쩌귀형²¹⁾과 같고 아래위로 구멍이 뚫린다는 점이 돌쩌귀와 동일하므로 종공돌쩌귀라 하였다. 상하로 종공이 뚫린 맺음고리가 장골용기의 뚜껑과 몸체사방에 부착되어 뚜껑 맺음고리와 몸체 맺음고리가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위치에 부착되면 마치 문에 부착된 돌쩌귀와 같은 형태가 된다. 맺음고리가 달린 신라장골용기 중에는 종공 돌쩌귀형 맺음고리 장골용기류가 가장 많다.

(3) 횡공 반환(半環)형 맺음고리

20) 김희진, (2001), 「현대장례문화를 위한 도자 골호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21) 돌쩌귀 : 주로 한옥의 여닫이문에 다는 경첩. 쇠붙이로 만든 암수 2개로 짝을 이루어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이는데 수짝은 문짝에 박고 암짝은 문설주에 박아 서로 맞추거나 꽃게 되어 있다.



【 도 23 】 황궁 반환형 땃음고리
 황궁 반환형 땃음고리는 직경 1Cm 미만의 등근 점토 띠를 4~5Cm 가량 길이로 끊어 띠의 양끝을 상하로 장골용기에 붙여 반환형이 되도록 하거나 반원형 점토 띠를 장골용기에 상하로 붙여 황궁 반환형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땃음고리의 구멍은 좌우로 뚫리게 된다. 이 황궁 반환형 땃음고리는 삼국시대의 장골용기 어깨 양쪽에 부착되어 오다가 뚜껑과 몸체의 사방에 부착되어 장골용기의 땃음고리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4) 귀면(鬼面)형 땃음고리



【 도 24 】 귀면(鬼面)형 땃음고리
 귀면형은 금속기의 화수장식 고리의 의장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하였다. 이러한 귀면형 땃음고리를 부착한 장골용기는 다른 장골용기에서는 잘 찾아 볼 수 없다. 귀면형 땃음고리는 항아리의 몸체 어깨부분의 부착되어 구멍은 좌우로 뚫어져있고 뚜껑에는 뚜껑꼭지도 없고 땃음고리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장식적이었던 것 같으며 크기, 화려한 압인문 등으로 보아 상류층 장골용기였던 것 같다.²²⁾

22) 정길자, (1980), 「신라장골용기연구」, 한국고고학보, p.58

4) 현대 장골용기의 작품 사례



[도 25] 박기용
<백자 함형 장골용기>

박기용의 백자 장골용기는 상·하로 구분 되어진 함의 형태를 취하였고 외형기와 내형기의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외용기와 내용기 모두 토기의 형태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고 뚜껑에 토기의 사격자 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음각 기법으로 조각하였다. 형태의 단순함에 포인트를 주는 기능과 함의 이빨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면에 귀를 부착하여 변화를 주었다.²³⁾



[도 26] 허은중.
<이슬람사원 장골용기>

종교의 차이로 인한 장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디자인으로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종교의 상징물로 각 종교의 사원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종교적 안정을 느끼게 의도하고 인간 삶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용기로서 사후세계에 영구히 정착 할 수 있는 망자의 영원한 안식처로 연상되도록 하였다.²⁴⁾

[도26]은 이슬람사원의 건축적 형상을 조각하여 뚜껑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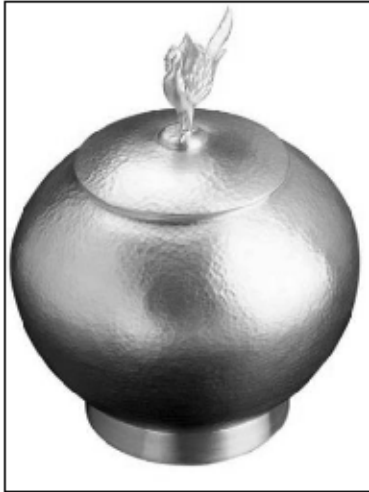


[도 27] 이승표
<상감청자 당초문 장골용기>

[도27]은 백자 소지를 물레 성형 후 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맺음고리를 만들어주었고 전체적인 형태는 뚜껑과 몸체의 크기가 비슷한 원형의 형태이며 풍만한 느낌을 주어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당초문을 흑상감으로 시문하고 고인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명패를 중앙부위에 표현 되었다. 전통적인 형태와 문양을 융 주어 시문하기로 표현한 전통과 실용성이 조화된 장골용기이다.²⁵⁾

23) 박기용, (2005), 「골호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24) 허은중, (2003), 「도자 골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도 28] 안명선

<당신의 짐을 벗어라> 두드러진 봉황이 보주(寶珠)장식 위에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듯이 서있는 형상을 그대로 차용되어져 있다.²⁶⁾

[도28]은 기본적으로 등근 호의 형태이며 한국 사리엄구나 장골용기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선비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표면은 백자 사리 호와 마찬가지로 아무 장식도 하지 않고 은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으나, 은의 표면에 관금작업을 하며 생긴 무수히 많은 망치자국은 고인에 대한 회상과 추모의 정을 담고 있다.

뚜껑손잡이 부분은 백제금동대향로 윗부분 봉황의모습을 정밀 주조하여 장식되었다. 향로 뚜껑 부분인 신산정상에 있는 관모와 긴 꼬리 깃털이



[도 29] 이현복, <백자 담장식 호>

[도29]는 석굴암 3층 석탑의 형태를 변형하여 제작 한 것으로 뚜껑이 있는 백자 항아리를 기초로 최고 넓이가 어깨 부분에 오도록 곡선의 중심을 위로 잡아 형태에 힘이 느끼도록 제작되었다.

뚜껑의 탑신석부분은 다각형으로 조각하여 접합한 것으로 낙수면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위로 살짝 들려 있다.²⁷⁾

25) 이승표, (2005), 「도제 납골용기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26) 안명선, (2006), 「금속제 납골 봉안용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4

27) 이현복, (2008), 「탑 형태를 응용한 기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5) 장골용기의 현황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골용기와 납골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장골용기의 형태와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장골용기들은 수요에 대한 양적인 발전에만 급급하여 저가의 수입품과 대량생산에 의한 개성 없는 획일적인 형태이다.

장골용기를 재료별로 구분하면 목재, 석재, 금속, 도제 장골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목재 장골용기는 가볍고(약0.2~0.8kg) 가격이 저렴하며 자연친화적 소재라는 장점이 있으나, 보존성이 취약하여 습기와 곰팡이, 썩이 발생하기 쉬워 장기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석재 장골용기는 원통형으로 견고하며 색상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이 장점이나 무게가 무겁고(약3.5~4kg) 습기를 잘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기에 노출되면 유골이 손상되거나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금속 장골용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사용률이 낮은 편인데 견고하고 타 재료에 비해 충격과 화재에 강한 반면, 금속은 차가운 느낌을 주며 습기에 노출되면 부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제 장골용기는 최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형으로서 무게가 목제보다 무거운 편이며(0.8~1kg) 뚜껑이 있는 항아리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며 습기 등에 변질되지 않으므로 관리가 편리하나 충격을 받으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²⁸⁾



【 도 30 】 불교용 장골용기



【 도 31 】 기독교용 장골용기



【 도 32 】 금빛 장골용기

28) 국가보훈처, (2009), 「안장능력 개선방안 연구」, p.54~55

[도30,31]과 같이 개성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 문양으로 식상한 디자인이며, [도32]는 금빛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으나 깊이가 없는 가벼운 금빛으로 색채는 단조롭고 형태 또한 아무런 개성이 없다.



[도 33] 그린자개 장골용기



[도 34] 폐화 장골용기



[도 35] 십장생 장

골용기

[도33,34]와 같이 단조로운 색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꽃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고급형 장골용기[도35,36] 역시 조형적 개성이나 변화가 없으며 문양에 대한 의미나 심미적 가치 없이 전통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 단순히 보관기능만 충족시키고 있을 뿐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36] 상감청자 장골용기



[도 37] 당초문진공 장골용기



[도 38] 황금진공 장

골용기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도37,38]과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진공 장골용기’는 장골용기를 진공 처리하여 유골이 썩지 않게 영구보존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유족이 선택하고 있으며, 화장을 한 장골용기에 진공가스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진공을 가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가 유입되어 진공이 풀린다는 것과, 진공가스를 한번 투입으로는 영구 보존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십이지신상에 대한 고찰

1) 십이지신상의 기원과 조형적 변화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기원한 십이지는 천문학의 발달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길인 황도(黃道)의 원 위의 별들을 12등분하여 그것을 열두 방위(方位)로 삼고, 각 방위마다 그에 상응하는 동물과 인물 등 열두 가지형상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으로 시간적인 관념에 의하여 12개월의 부호로써 쓰였다. 그 후 방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천문 역법(曆法) 도상이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동정(東征)시기를 즈음해 동쪽으로는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에 유입됐고, 중국에 전래된 중앙아시아 역법 도상이 중국식으로 재창조되어 월력(月曆) 상징 동물인 토끼, 개, 말 등 열두띠 사상이 후대에는 인간 형상화하여 악귀를 막는 예방으로 사용되며 숭배되기도 하였다. 북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인도와 월남 등 동남아시아로 전해지고 다시 멀리 대양을 건너 멕시코까지 전파되었다.

다시 오행가(五行家)들은 십간과 십이지에다 金木水火土의 오행을 붙이고 상생상극(相生相剋)의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배열하여 인생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안위까지 점치는 법²⁹⁾등으로 발전 하였으며 다양한 시대사조와 결합되면서 십이지는 문화로 형성되었다.

‘띠’는 중국에서는 생초(生綃), 속(屬), 속상(屬相) 등으로 부른다. 생초의 의미는 “옛날에 열두 동물을 십이지에 분배하여 사람의 태어난 해를 기록하는데 사용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국의 ‘띠 문화’와 중국의 ‘생초문화’는 같은 근원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물로 대체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십이생초(十二生肖)이다. 중국의 십이생초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삼국시대로 보고 있다.

29) 최재일, (2003), 「 십이지상 도제종경 형태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4

(1) 우리나라의 12지

십이지가 수수인신상(獸首人身像)으로 변모하는 것은 당(唐) 중기로서 신라의 십이지상의 발생시기와 견주어 전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동시적이다. 이것이 다시 갑주(甲冑)를 입고 신장(神將)으로서 모습을 갖춘 것은 신라가 처음이고 각기 다른 무기를 든 무복의 신장상(神將像) 호석³⁰⁾으로 능묘의 바깥 수호신으로서 부조의 형태로 대규모로 나타난다. [도39]과 같이 십이지로 하여금 무덤의 수호신 구실을 하게 한 것은 세계에서 독보적 존재로, 다른



[도 39] 경북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김유신 묘의 '호석'

어떤 나라 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양식 과 형식을 전개하여 왔다.³¹⁾ 십이지는 일반적으로 불교 건조물에 수수인신 형태이지만 [도39] 김유신 묘에서 보이는 특이한 도무상 (跳舞像)으로 돌연 나타난다.

십이지 신앙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밀교 영향으로 호국적 성격을 지녔으나, 삼국통일 이후는 단순한 방위 신으로서 신격이 변모해 갔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변모, 즉 신장으로서의 십이지상, 도무상으로서의 십이지상은 오직 신라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문화현상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이것은 다시 동물의 탈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冠)에 축소되어 잔존하는데, 다시 묘내(墓內)의 석관에 음각되거나 내벽의 벽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도 40] 김유신 묘 십이지신상 탁본

30) 봉분(封墳) 주위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여러 개의 돌기둥을 세워 난간을 둘러친 시설을 한 능침(陵寢)제도.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석」, www.encykorea.aks.ac.kr

통일신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십이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십이지신상은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친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능묘(陵墓) 십이지 호석, 능묘의 주변, 석실 내부의 주변, 장골용기 주변 등에 여러 방법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사자(死者)의 주변이라는 기본적 배치방법은 변함없으며, 십이지상은 시간신과 방위 신으로 8~9세기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고, 그것이 그 이후 한국 능묘제도의 신앙적 핵심을 이룬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입상(立像)뿐만 아니라 좌상(坐像)도 나타나고, 현릉 현실 벽화의 십이지신상은 복잡하고 높은 관을 쓰고 바지, 치마를 입었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홀(摠)을 쥐었는데 머리에 쓴 관에 십이지동물 두상이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몸 전체가 동물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상을 걸치고 무용하는 형상이라든가 문관상(文官像) 또는 이러한 형상을 혼성시킨 탈춤도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 말에는 온몸에 의복을 입힌 형상이 무속화(巫俗畵)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십이지신상의 개념도 달리하여 나타나게 되는바, 각 시대의 종교 신앙의 성쇠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³²⁾

십이지는 통일신라 이래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천문, 역법에서는 방위와 시간의 개념으로, 풍수, 점복, 해명(解名), 택일, 사주, 궁합 등에서는 길흉을 예지하는 비결로, 능묘의 호석, 사찰의 불화, 민화 등에서는 제액초복의 수호신 또는 길상을 상징하는 도상 형태로, 생활용구나 각종 장식품에서는 장식용 문양의 형태로 십이지의 조형과 사상은 한국에서 가장 폭 넓게 사용되었다.

오늘날 전승되는 ‘띠’문화의 핵심은 개인의 운명, 심성을 파악하는 것대이며,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융화관계 또는 상충관계를 밝히는 체계이다.³³⁾

한국문화 속에서 띠 동물에 대한 담론(談論)은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집중된다. 첫째는 연말연시에 새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그 해의 수호동물인 12지의 동물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점친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운명은 띠 동물과 연관시켜 미래를 예지하려고 했다. 세 번째는 그 아이가

32) 임영주, (1998), 「한국전통문양- 제3권 상징적 동물문양」, 예원

33) 천진기, (2002),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0,25

자라나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상대의 띠와 궁합을 맞추면서 ‘띠’가 거론된다.

모든 새해의 연운(年運)은 그 해 수호동물이라 할 수 있는 12지동물의 성격과 행태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된다. 양띠 해는 양을 닮아 평화롭고, 말띠 해는 말을 닮아 활기차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은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각자의 띠와 그 띠 동물의 좋은 덕성과 의미를 들으면서 자라났다. 예컨대, “쥐띠는 식복이 많다”, “잔나비 띠는 손재주가 있다”, “소띠는 부지런하다”, “범띠는 용감하다”등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띠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래서 각자 띠 동물의 덕성을 자기의 특성으로 삼아 행동하려 했고, 본받으려고 했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띠 동물 특성을 얼마나 닮았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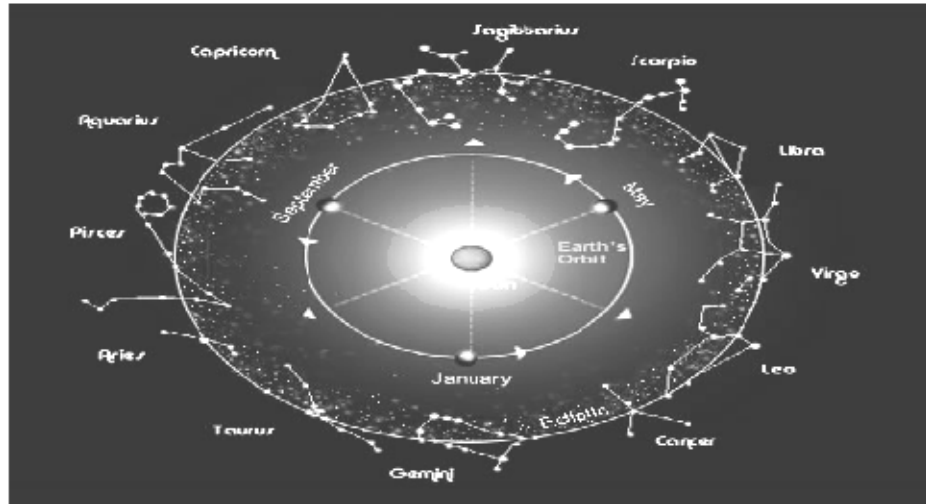
‘띠’동물의 생태모형으로서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판단하는 속 신어들이 민간층에서 많이 전승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띠 동물의 생래적(生來的)으로 타고난 형상과 습성을 닮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띠 문화는 중국의 생초(生肖, 띠)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전래된 이후에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민의 종합적 사고 형태이며 생활철학의 관념체계’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인은 각자마다 ‘띠’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심성에 투영된 ‘띠’동물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동안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자아의 내면세계를 형성하고 대변하고 있다.³⁴⁾

34) 국립민속박물관, 「띠에 관한 한국인의 관념」, www.nfm.go.kr

(2) 세계의 12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기원한 황도12궁은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지구와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도41]과 같이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黃道, ecliptic)라 하고 이 황도에 있는 12개의 밝은 별자리를 황도 12궁(黃道十二宮, zodiac)이라 하며, 십이지에 대한 관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러시아,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도 41] 황도 12궁

서양에서는 12간지 말고 12성좌(별자리)를 사용 한다. 밤하늘에 등글게 퍼져 있는 별자리를 보며 눈에 띄는 밝은 별들을 연결하여 신의 모습이나 관심 있는 동물 등의 모습을 밤하늘에서 상상하게 된 것으로 이 12궁과 별자리는 <표8>과 같이 백양궁(양 자리), 금우궁(소자리), 쌍자궁(쌍둥이자리), 거해궁(게자리), 사자궁(사자자리), 처녀궁(처녀자리), 천칭궁(천칭자리), 천갈가궁(전갈자리), 인마궁(사수자리), 마갈궁(염소자리), 보병궁(물병자리), 쌍어궁(물고기자리)으로 이루어진다.

< 표 8 > 황도 12궁. 별자리 표

황도 12궁	백양궁, 금우궁, 쌍자궁, 거해궁, 사자궁, 처녀궁 천칭궁, 천갈가궁, 인마궁, 마갈궁, 보병궁, 쌍어궁
별자리	양자리, 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와 같이 서양인의 관념 속에도 12지가 간접적으로 자리함을 알 수 있으

며, 중국이나 인도 등 동양에서도 예로부터 별자리가 고안되었는데 이것들은 서양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는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십이지에 관련된 전설은 중국, 한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주변국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해져 오고 있으나 그 나라 사람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 있으며 <표9>에서 보듯이 다양한 동물로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동일하며 태국은 고양이, 코끼리 등이 12지에 나타나며, 바빌로니아는 악어와 홍학이 등장하여 12지가 나라의 특성과 행동이 반영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표 9 > 세계의 십이지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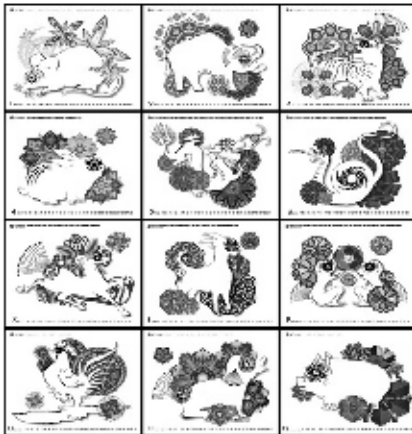
	세계의 십이지 동물
한국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멧)돼지
바빌로니아	고양이, 개, 뱀, 갑충, 나귀, 사자, 산양, 황소, 매, 원숭이, 홍학, 악어
인도	쥐, 소, 사자,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금시조, 개, (멧)돼지
티베트	쥐, 소, 호랑이, 고양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집)돼지
태국	쥐, 소, 호랑이, 고양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코끼리
베트남	쥐, 물소, 호랑이, 고양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집)돼지
러시아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멧)돼지
몽골	쥐, 소, 표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멧)돼지
벨라루시	쥐, 소, 호랑이, 고양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집)돼지

2) 십이지신상의 작품 사례



[도 42] 임원행. <호랑이. 개>

[도42]는 전통적인 십이지신상과는 달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십이지신상은 조금은 해학적이며 친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인형처럼 복제화 되어 슬프게 쳐다보는 호랑이, 자기꼬리를 물고 들고 있는 개 등)



[도 43] 채영미. <십이지 달력>

[도43]은 제42회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십이지신을 점과 선으로 부각시키고 십이지들의 눈은 한국적인 문양으로 나타내었으며, 세계문양과의 조화로 외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문양의 화려 함으로 시각적 효과를 더욱 부각시켰다.



[도 44] 전창현. <마형화기>

[도44]는 조랑말 오브제를 접목한 작업인 기(器)에 어미 말과 아기 말이 올려 말(馬)의 말(言) 등 언어가 가지는 다의성(多意性)이 하나의 작품을 매개로 모아지는 동시에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내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들은 결국 '가족'이라는 공통분모로 작가는 작품세계를 통해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관람객과의 유쾌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 45] 유종숙. <나는 강하게 무엇을 지켜왔다>



[도 46] 장미경. <호랑이 꼭두>

[도46]은 작고 통통하고 못생긴 말의 형태를 가졌으면서도 강한 인상을 느끼게 하는 제주 조랑말을 표현한 작품으로, 제주의 돌을 닮은 색깔과 자연스레 나오는 흙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표면의 질감에서 제주의 색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도46]은 조선시대 상여장식‘꼭두’를 우리나라 민화에서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하여 익살스럽고 신명나는 작품으로 변모시켜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도47]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페디먼트³⁵⁾의 오른쪽 끝부분에 조각되어 있는 마두를 연상시킨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듯한 콧구멍, 벌린 입과 볼록 튀어나온 두 눈 등의 사실적이고 생생한 표현은 물론, 단아하게 다듬어진 근육과 전체적으로 이상화된 표현에서 두 작품이 매우 유사하다.³⁶⁾

[도 47] 권진규. <마두>

35) 건물의 입구 위쪽과 지붕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의 마감장식을 한 건물의 벽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물과 같이 장식을 하거나 특수한 형태로 된 경우에 그것을 페디먼트라고 부른다.

36) 전장배, (2005), 「마신앙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III. 작품 제작 및 해설

1. 작품 계획

매장은 장례절차와 묘지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뿐 아니라 대부분 묘지가 먼 거리에 있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반면에 화장은 화장 후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장례비의 저렴함 뿐 아니라 편리하고 위생적인 사후 관리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며³⁷⁾, 묘지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위생적인 장묘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민들의 장묘에 대한 의식구조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골용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납골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으로 그 발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본인과 유족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다양한 장골용기에 대한 공급부족이다.

따라서, 현대의 심미관념에 맞으며 과거의 장골용기의 기능적 장점을 살려 장골용기의 독창적인 조형성을 대중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장골용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고 있는 천원지방(天圓地方)³⁸⁾사상에 근거하여 계획하고자 한다. 천원(天圓)이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을 상징하며 내세를 의미하는 원형을 간결하고 단순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변화를 주기 적합한 수직 원통형과 단아하고 소박한 자태로 한국적인 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호(壺)형으로 점토의 특성에 부합되는 부드러움의 표면효과를 살려 물레성형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지방(地方)이 뜻하는 땅을 형상화는 현세(現世)의 의미로 네 개의 굽으로 깎아서 표현하고자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유골분(遺骨粉)의 용량과 납골 공간의 크기에 맞춰 가로, 세로, 높이를 약 25cm 내외로 제작하려하며 유골은 성분 중 인산(磷酸)³⁹⁾

37) 이일광, 「장묘문화의 현재와 미래」, www.keywordguide.co.kr

38)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원만하고) 땅은 네모지다(방정하다)'는 동북아시아의 지형관, 우주관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제삿날 신주, 지방을 적을 때 한지를 는 둥글게 자르고 아래는 직선으로 자른 이유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결들여진 것이며 경주의 석굴암이나 첨성대도 천원지방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하늘은 양(陽)이요, 땅은 음(陰)이니 모든 세상은 양과 음으로 이루어짐을 표현한 것으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고 있다.

과 칼슘성분이 수분흡수력이 매우 강함으로 기존 장골용기는 유골을 분쇄 후 장골용기에 넣었을 때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한 습도에 의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골분의 뭉침과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외용기와 내용기를 따로 성형하며 내용기는 제습을 위하여 초벌온도인 850℃로 소성하고 굽을 달아 최대한 외용기와 내용기 간의 간격을 주고자 한다.

외용기는 조습(燥濕)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유약을 바르지 않고 껍과 재단을 얹고 소성하여 기공이 막히지 않으며 자연발색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타나도록 자연강회유³⁹⁾ 소성방식으로 제작하고자 하며, 십이지신상을 전통적인 십이지신상과는 달리 조금은 해학적이며 친밀한 이미지로 응용하며 현대적 개념과 조형적 가치를 높이며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조선시대의 뛰어난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면치기 기법을 활용하여 통일신라시대의 호석에서 십이지신상이 가지고 있는 방위신의 의미로 12면을 표현하여 십이지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차적으로 두들김으로 각 면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효과를 얻고자 하며, 좌수(把手)장식고리 외장인 귀면형 맺음고리는 중국, 백제, 일본 등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창적 기능을 가진 대표적 기형으로써 십이지의 동물 형상으로 부착하여 뚜껑과 몸체를 매듭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하였다.

39) 인산 [phosphoric acid , 磷酸], 인의 산소산의 일종으로, 5산화인의 수화생성물의 총칭으로 인은 제 내에 0.8~1.2% 있으며, 그 중 약 80%가 뼈나 치아에 인산칼슘으로서 존재한다.

40) 토기를 구울 때 연료의 재가 모두 가마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가 가마 안을 떠다니다가 토기의 표면에 내려앉기도 하는데 이때 재가 포함한 칼슘이나 나트륨, 칼슘 등이 고온에서 토기소지의 주성분인 규산이나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유리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유를 자연유, 또는 자연강회유라고 부른다.

2. 제작 과정

1) 소지

작업에 사용된 소지는 소결시 기공이 미세다공질로 열려 있어 자연통풍이 되도록 입자가 크고 사질이 많은 용기토와 산청토를 혼합하였으며 여기에 소금유와 자연강회유로 소성시 자연스러운 발색과 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백자토와 철분(Fe_2O_3)이 많이 포함된 분청자토 이밖에 건조수축 및 소성수축으로 인한 균열과 변형을 줄이기 위해 카올린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소지의 혼합비는 다음과 같다.

< 표 10 > 태토 조성비

원료	용기토	산청토	백자토	분청자토	카올린	합계
조합비(%)	10	20	20	25	25	100

2) 성형

전체적으로 물레성형에 의해 제작되어지는 원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한 덩이 흙으로 뚜껑과 몸체로 나누어 각각 물레 성형함으로써 최대한 수분함량에 의한 수축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천원지방사상에 근거하여 수직 원통형과 호형을 물레성형 제작하고 땅의 의미로 반 건조 상태에서 굽을 사방으로 돌려내어 네 개의 굽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장골용기의 성형을 마친 뒤 각각의 십이지신상을 조형적으로 만들어 뚜껑에 결합하고 이에 맞는 십이지신상을 귀면형 땃음고리로 제작하여 몸체의 양쪽으로 부착하였다. 건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땃음고리와 몸체와의 수분차이에 의한 수축률을 맞추기 위하여 땃음고리를 일정시간 건조 후 붙이고 건조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줄이기 위해 기물 전체를 천으로 감아 오랜 시간 건조하였다.

3) 시유

자연강회유는 흙의 맛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은 규칙성이 없는 것인데 그 덕분에 요변(窯變)이 소성 진행 중에 도자기 표면에 일어나 독특한 문양들이 나오게 된다.

1차적으로 태토의 발색을 위하여 과포화(過飽和) 상태의 소금물에 약 1분간 재워 놓았다. 소금유약의 경우 태토와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발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금유는 대부분 산에 강하고 온도변화에도 변동이 없으며 습기 및 방충 등에 강해 장골용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고온에서 뚜껑과 몸체, 바닥에 접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알루미나 가루를 사용하여 뚜껑과 몸체, 기물과 내화 판 사이에 바르고 재임을 하였다.

2차로는 유골은 성분 중 인산과 칼슘성분이 수분 흡수력이 매우 강함으로 기존 장골용기는 유골을 분쇄 후 납골함에 넣었을 때 내부와 외부 계절 변화에 따른 온도차이로 인하여 유골은 썩는 것이 자연현상이며 벌레가 들어오고 악취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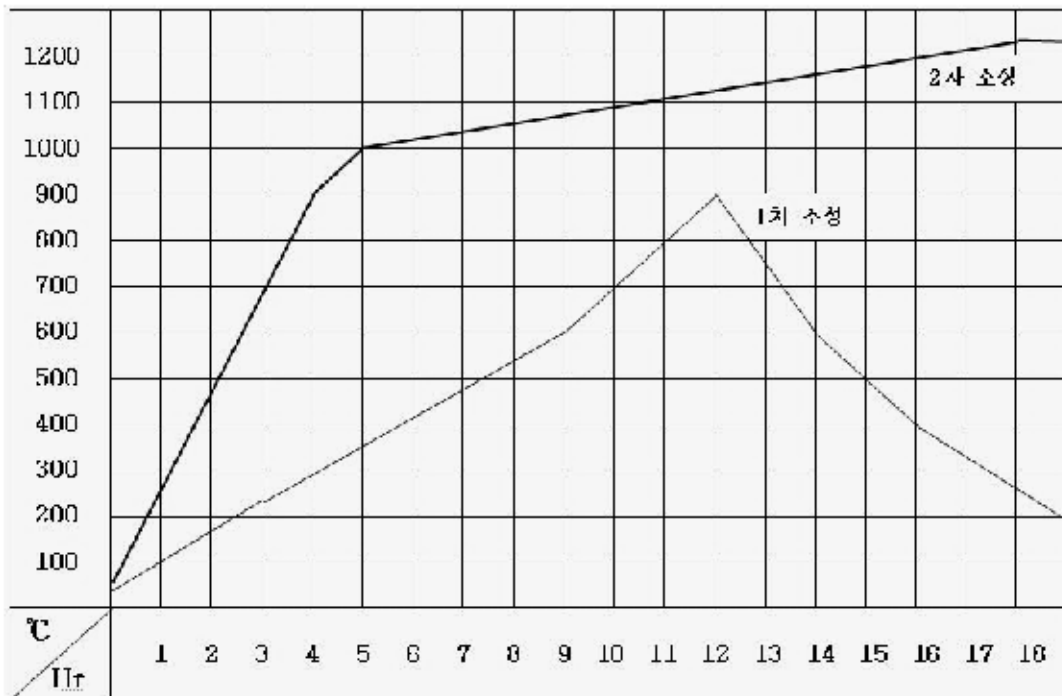
그러므로 장골용기의 외부에는 기공이 막히지 않으며 제습작용과 건조기후에 습기를 방출하여 적정습도를 유지시키고, 자연스러운 색감과 문양이 나타나도록 규석 성분이 많은 벚꽃이나 새끼줄, 식물줄기를 활용해 표면에 묶음을 만들어 소성하였다. 이때 질의 알칼리 성분과 점토의 알루미나(Al_2O_3)와 규산질(SiO_2)이 화합하여 도자기 표면에 묶인 자국이 만든 독특한 문양을 만들며, 소성 전 기물에 재를 입힘으로써 재가 기물에 내려앉아 마치 재유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작품에 접목하였다. 또한, 요변을 만들기 위해 작품 위에 장작을 놓아두거나 목탄 등을 넣기도 하였다.

내부에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산이나 알칼리에 녹지 않으며, 내열성(耐熱性), 방수(防水), 방부(防腐), 방충(防蟲), 방균(防菌), 살충(殺蟲)의 효과가 뛰어난 내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아열대지방 식물에서 채취한 농축액을 정제하여 합성한 도료인 카슈를 도포하여 방부, 방충, 방균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4) 소성

1차 소성은 기물의 파손이나 뚜껑과 몸체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가 마에서 60℃로 약 하루 동안 충분히 완전 건조되도록 균불소성을 한 뒤 기물이 완전히 건조된 후 천천히 850℃까지 12시간 소성하였다. 2차 소성 또한 가스 가마를 이용하여 1245℃로 환원(還元・Reduction Firing) 소성하였다. 자연 강회유에서 짚과 재 등이 소성 중에 충분히 태토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900℃에 환원으로 소성을 시작하여 14시간 동안 천천히 소성하였다. 이후 짚의 규산질(SiO_2)이 충분히 용융되도록 1245℃에서 1시간 동안 끌어주었다. 2차 소성은 총 19시간 소성 후 이틀간을 식혀 요출(窯出)하였다.

< 표 11 > 소성 그래프



3. 작품 및 작품 해설

[작품 1. 2. 3. 4] 자연강회유 장골용기

수직 원통형은 기하학적으로 간결하고 단순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주며 변화를 주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천원지방 사상에 근거하여 천원이 의미하는 하늘의 기운을 담고자 원형으로 물레성형하고 지방이 뜻하는 넓고 듬직한 기운을 담고 있는 땅을 형상화하며 현세의 의미로 네 개의 굽으로 도려내어 표현하였다.

십이지신상을 전통적인 십이지신상과 달리 해학적이며 친밀한 이미지로 응용하여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이에 맞는 십이지신상을 귀면형 뿔음고리로 제작하여 몸체의 양쪽에 부침으로 끈으로 매듭을 묶어 뚜껑과 몸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유골을 직접 담은 내용기를 보호하거나 유골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와의 온도차에 의해서 장골용기 내부의 결로현상으로 유골분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외용기와 내용기를 따로 성형하였으며, 외용기는 조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자연강회유로 처리하여 흙의 맛을 살리고 불과 자연물이 소성 중에 요변을 일으켜 도자기 표면에 자연스러운 문양들이 나오게 하였다.



[작품 1] 자연강회유인(寅) 장골용기 26×22.5×22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2] (左) 자연강회유'신(申)'장골용기 27.5×23×25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3] (中) 자연강회유'진(辰)'장골용기 27×23×26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4] (右) 자연강회유'인(寅)'장골용기II 27×23×24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5. 6. 7. 8] 자연강회유 12각 장골용기

제작 기법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면치기 기법을 응용하였다. 또한, 물레성형에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이나 단순함을 통일신라시대의 호석에서 십이지신상이 가지고 있는 방위신의 의미로 각각 몸통과 뚜껑에 12면을 채내어 형태를 제작하였다.

십이지신상과 그 동물의 이미지에 연상되는 이야기를 연결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5] (左) 자연강회유 12각 '묘(卯)' 장골용기 26×22×23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6] (右) 자연강회유 12각 '사(巳)' 장골용기 26×22×22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7] (左) 12각'인(寅)'장골용기 26×23×25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8] (右) 12각'진(辰)'장골용기 26×23×26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9. 10. 11] 귀얄문 분청자 12각 장골용기

어떠한 조형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치(筆致)와 붓의 흐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귀얄자국은 생동감이 있다.

기물 표면에 생생한 운동감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뚜껑의 십이지신상은 수금(水金)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으며 호석과 같이 열두 방위의 의미로 12면을 면치기하여 형태를 제작하였다.



[작품 9] (左) 귀얄분청자 12각'유'(酉)장골용기 26×23×25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0] (中) 귀얄분청자 12각'오'(午)장골용기 26×22×25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1] (右) 귀얄분청자 12각'축'(丑)장골용기 26×22×24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2. 13. 14. 15. 16. 17] 자연강회유 호형(壺形) 장골용기

호형은 예나 지금이나 도제 장골용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원 가운데서도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친근감을 갖게 해주는 형태이다. 단아하고 소박한 자태의 한국적 조형미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2] (左) 자연강회유 호형'인(寅)'장골용기 20×20×25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3] (右) 자연강회유 호형'오(午)'장골용기 25×20×25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5] (上 左) 자연강회유 호형'미(未)'장골용기 25×21×24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6] (上 右) 자연강회유 호형'신(申)'장골용기 25×20×24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7] (下 左) 자연강회유 호형'유(酉)'장골용기 25×21×25 cm 1245℃ Reduction Firing

[작품 18] (下 右) 자연강회유 호형'사(巳)'장골용기 26×22×23 cm 1245℃ Reduction Firing

IV. 결 론

현대에 들어와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화장물 또한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이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납골장례문화에 따라 장골용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개개인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실용성과 의미를 동시에 갖춘 장골용기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장례법에서 사용되기 시작된 장골용기를 현대인의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하여 종교적 구애를 받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는 ‘띠’문화로 접근하여 본래의 장골용기가 갖고 있는 죽음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장례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일상속의 예술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십이지신상을 응용한 조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장골용기를 연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매장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장묘관습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의 장묘문화와 납골시설을 분석한 결과, 과거의 무겁고 어두운 장례시설과는 달리 밝고 열린 추모공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납골당 안치단의 각 기부에 대한 치수를 조사하여 장골용기 제작에 대한 방향과 규격을 구할 수 있었다.

둘째, 고대 화장 문화에 사용되었던 토기 장골용기는 기능이 과학적으로 우수하여 유골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성을 지니며 뛰어난 조형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옛 장골용기의 아름다움을 계승함에 있어서 화려한 문양이나 장식보다는 시대성에 맞는 장골용기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기능성과 기형적 특징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미를 근간으로 꾸미지 않은 부드럽고 편안하여 소박한 형태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기능성과 심미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장골용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셋째, 십이지신상은 방위와 시간의 개념과 수호신 또는 길상을 상징하는 도상형태로 통일신라 이래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 속에서 생활용구나 각종 장식용 문양의 형태로 폭 넓게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십이지신상과는 달리 조금은 해학적이며 친밀한 이미지로 조금은 유머러스하도록 자연스러운 형태로 세부적인 묘사 보다는 전체적인 특징과 의미에 중점을 두어 과장과 생략으로 질박하고 토속적인 표현으로 현대적 개념과 조형적 가치를 높여 장골용기에 장식함으로 실용성과 장식성을 더하여 실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뱀음고리를 부착한 장골용기는 신라 장골용기의 대표적 기형으로 중국, 백제, 일본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창적 고안품인 뱀음고리를 십이지신상을 응용하여 금속기의 파수장식 고리의 의장인 귀면형 뱀음고리 형식으로 제작하여 장식적 뿐만 아니라 끈 매듭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내, 외용기의 파손과 유골분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본의 개념을 탈피하여 사용자 본인이 평소 애미 준비하였다가 사후에 사용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넷째, 안치단의 크기와 기존에 제작되어온 장골용기의 크기가 여유 공간이 없이 정확하게 맞게 제작되어있어 작품의 장식적인 십이지신상이나 뱀음고리로 인해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실사용 시 불편함이 제기되었으며, 장골용기의 결로현상 방지효과와 자연스러운 발색을 표현하기 위한 자연강회유 처리로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의 표면처리와 기능적 장점은 살릴 수 있으나 요변에 의해 뜻하지 않게 발색,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단점은 앞으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소지와 자연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연스러운 색감과 표면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며 납골 공간에 대한 형태와 크기를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형태를 응용한 현대적인 감성의 장골용기를 제작, 연구하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며 현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품으로 이러한 연구가 향후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골용기가 연구 개발되어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1] 강경숙. (1989). 「韓國陶瓷史」. 일지사
- [2] 김익영. (1992). 「조형 논총 11권」
- [3] 임영주. (1998). 「한국전통문양- 제3권 상징적 동물문양」. 예원

학위논문

- [4] 김희진. (2001). 「현대 장례 문화를 위한 도자 골호 연구」. 국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박기용. (2005). 「골호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숙례. (2002).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박형삼. (2009). 「추모납골시설의 실내 건축 계획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신봉균. (2006). 「모란공원 납골당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납골당 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안명선. (2006). 「금속제 납골 봉안용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이승표. (2005). 「도제 납골용기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이현복. (2008). 「탑 형태를 응용한 기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전장배. (2005). 「마신앙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정길자. (1989). 「통일신라시대의 화장골장용 토기 연구」. 숭실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정민자. (2007). 「한국의 장묘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천진기. (2002). 「한국 떠돌이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최제일. (2003). 「십이지상 도제풍경 형태연구」. 경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최정숙. (2005). 「전통문양기법을 응용한 도자 골호 개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허은중. (2003). 「도자 골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회논문

- [19] 강인구. (1977). 「백제(百濟)의 화장분묘(火葬墳墓)」, 백제고분연구
- [20] 김경혜. (2001). 「장묘시설 수급 및 정책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 [21] 정길자. (1983). 「고려시대(高麗時代) 화장(火葬)에 대한 고찰(考察)」,
부산사학(釜山史學)
- [22] 정길자. (1980). 「신라장골용기연구(新羅藏骨容器研究)」, 한국고고학보

저널아티클

- [23] 이필도. (2006). 「한국 장묘문화의 현황과 변화의 방향」, 에이엔씨
- [24] 국가보훈처. (2009). 「안장능력 개선방안 연구」
-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 [26] 이재일. (2005). 「일본의 장례식과 납골문화」, 현대불교미디어센터
- [27] 이일광. 「외국의 장묘제도와 장례풍습」, www.keywordguide.co.kr
- [28] 이일광. 「장묘문화의 현재와 미래」, www.keyword.pressian.com
- [29] 국립민속박물관. 「띠에 관한 한국인의 관념」, www.nfm.go.kr
- [30] 국립문화재연구소. 「땀단지」, www.nrich.go.kr
- [31] 네이버 백과사전. 「십이지신상」, www.l00.naver.com
- [32] 네이버 지식 in. 「각 나라마다의 장례식」, www.kin.naver.com
- [33]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우리나라의 상장례 문화」, www.life21.or.kr
- [34]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세계의 상장례 풍습」, www.life21.or.kr
- [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땀단지」, www.encykorea.aks.ac.kr
-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석」, www.encykorea.aks.ac.kr

ABSTRACT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eramic Cinerary Urn : Based on the Statue of Twelve Gods

Kim, Joo hwan

(Supervisor Kim, Jong hyoun)

Dept. of Ceramic Art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funerary culture is fast shifting from burial-oriented culture to cremation-oriented culture.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ceramic cinerary urn is becoming increasingly recognized with the rapid growth of cremation culture.

Ceramic cinerary urns play roles as a place to rest for the deceased and a medium of commemorating the memory of the deceased for the bereaved. For these reasons, there are demands for ceramic cinerary urns that are tailored to the individual deceased and the bereaved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However, most of current ceramic cinerary urns, which are being mass-produced, do not meet their needs.

Sibijisinsang (statues of the twelve animals of the Chinese zodiac) is a culture that has been shared by all Koreans since the Three Kingdom Period and it gives them a sense of kinship. Also, a specific Chinese zodiac sign is assigned to each individual depending upon the year in which the individual was born, meaning that his or her zodiac sign never changes their entire life—numerous customs related to the Chinese zodiac signs have taken root in various societies across the world as part of folk culture.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significance of ceramic cinerary urns by associating the urns with the end users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In addition, it aims to meet the aesthetic taste of contemporary people by strengthening the functional strength of old ceramic cinerary urns and their formative value so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relate to them.

In order to do so, the study proceeded in the following ways:

Chapter 1 defin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eramic cinerary urns as well as the methods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funerary culture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funerary culture as part of theoretical study. It then looks into how the Chinese zodiac signs have been applied in practice by examining the variety of works and theoretical aspects including the origin of Korean ceramic cinerary urns and the change in their shapes over tim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inerary urns, the history, formative change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ibijisinsang*.

Based on the above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describes how to integrate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surface decoration of Korean traditional ceramic cinerary urns with the meaning and shape of *Sibijisinsang*, which forms the part of Korean people's inner side in their subconscious, considering fast developing funerary culture and the various preferences and tastes of modern people.

This study presents a mock-up of ceramic cinerary urns that symbolically applies *Sibijisinsang* to meet the needs of modern funerary cultu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the use of ceramic cinerary urns in various designs.